

광주 4명중 1명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미흡

고령자·어린이·장애인 여객시설·보행환경 불편 시, 2021년까지 1412억 투입 38개 개선사업 추진

광주시민 4명 중 1명은 교통약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보행환경 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통약자(交通弱者)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말한다.

21일 광주시가 최근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통약자(2015년 기준)는 36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 147만2000명의 24.4%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고령자가 45.8%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고 어린이 20.7%, 영·유아 동반자 19.0%, 장애인 11.0%, 임산부 3.4% 순으로 조사됐다.

교통약자의 수는 5년 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1.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고령

자는 4.6%의 증가율을 기록,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저상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내버스의 경우 10대 중 2대 이상이 설치되지 않았다.

여객시설도 버스정류장은 37.9%, 버스터미널 28.3%, 도시철도 역사 17.9%에 점자블록, 음성안내, 외부 연결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미흡했다.

특히 보행시설(576.5km)은 41.6%만이 적합하게 설치돼 있을 뿐 나머지는 미설치(49.1%)됐거나 미적합(9.1%)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편의시설 만족도(10점 만점) 조사 결과도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은 각 5.8점, 보행환경은 5.3점에 그쳤다.

광주시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 증진계획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교통수단 이동편의 개선, 여객시설이나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등 모두 38개 사업에 141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확 끝난 들녘 밀밭 태우기.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광주시 남구 원산동에서 한 농부가 수확이 끝난 밀밭을 태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어려워진 국어·수학... 올해도 불수능 예고

영어 절대평가에 1등급 8% 증가... 변별력 하락

6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

올 11월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변별력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어·수학 뿐 아니라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 영어영역도 수험생들 기대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시 모집 인원 축소, 대학별 영어영역 반영비율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교사들의 진학 지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국어·수학...역시 어렵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1일 발표한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3점으로 집계돼 지난해 수능(139점)보다 높았다.

수학도 인문계 수험생이 주로 응시하는 나형은 138점, 가형 138점 등으로 전년도 수능(가형 130점, 나형 137점)보다 표준점수가 높았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성과 얼마

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지면 평균이 낮아지면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반대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내려간다. 국어·수학 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6월 실시된 모의평가(국어 141점·수학 가형 126점·수학 나형 139점)보다도 표준점수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수능도 '쉬운 수능'은 아니라는 게 현장 교사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영어 절대평가...달라진게 없네=영어영역은 지난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면) 변별력이 떨어지니 그만큼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과목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에서는 체감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올 들어서도 "방심하면 큰 코 다친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만큼 이번 영어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유형과 난도, 등급 분포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점에서다. 시험 당일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절대평가라 쉬울 줄 알았는데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반면,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영어영역 채점 결과,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아 1등급을 받은 학생은 모두 4만2183명으로 응시자의 8.08%였다. 지난해 수능에서 상대평가 1등급(4.42%)을 받은 학생이 2만4244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만7939명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영어 영역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차이가 나는데다, 다른 과목 반영 비율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학별, 학과별 지원 가능 점수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혼란도 예고되고 있다.

사회탐구의 경우 생활과 윤리 표준점수 최고점이 69점으로 경제(79점)와 10점 차이가 났고 과학탐구에서는 물리Ⅱ와 지구과학Ⅱ(각 81점), 화학Ⅰ(72점)간 차이가 가장 컸다.

장광재 송덕고 진로진학상담부장은 "이번 모의평가를 토대로 목표 대학 지원가능성을 판단, 수시지원 대학과 영역별 응시 유형 등을 선택해야한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 장·단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교육청 일반직 633명 인사

전남도교육청은 21일 이종범 나주공공도서관장 도교육청 행정국장(3급)으로 승진 임용됐다. 또 4급 홍보담당관에 김영안 시설과장을 임용했고 총무과장으로 김점수 목포공공도서관 총무부장, 재무과장에 이점희 홍보담당관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영, 신규 임용 13명을 포함해 모두 356명이다.

이번 인사로 이혁진 거점교육성추진단장이 나주공공도서관장(3급)으로 승진 임용됐다. 또 4급 홍보담당관에 김영안 시설과장을 임용했고 총무과장으로 김점수 목포공공도서관 총무부장, 재무과장에 이점희 홍보담당관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 해질 19:50 | 달돋이 03:36 | 달질 17:38

분별더위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겠다.

◇지역별 날씨(°C)

광주	20/34	보성	17/29
목포	21/28	순천	20/32
여수	20/28	영광	19/30
나주	19/33	진도	18/28
완도	20/29	전주	19/31
구례	17/33	군산	19/29
강진	19/30	남원	18/32
해남	19/29	홍산도	18/25
장성	18/3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부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안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북~북동
남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북~북동
안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북~북동
남바다(동)	남~남서	0.5~1.5	남서~서	0.5~1.5	남서~서
남바다(서)	남~남서	0.5~1.5	남서~서	0.5~1.5	남서~서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43	00:11
		17:54	12:19
여수		01:12	07:22
		13:26	20:02

◇주간 날씨

날짜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날씨	☀	☁	☁	☁	☀	☀	☀
기온	19/30	22/28	21/28	21/29	20/29	20/29	20/29

◇생활지수

- 위험: 식중독
- 높음: 자외선
- 보통: 미세먼지

학교비정규직 노조 이달말 파업... 급식 비상

29~30일...전남 파업 결의·광주 내일 찬반 투표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조리원, 영양사,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급식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진행된 정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9.1%가 재의에 찬성해 오는 29일~30일 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속수당 1년당 5만원 지급 ▲급식비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에는 전남 730개 초·중·고교 및 23개 단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급식조리원 530여명, 조

리사 2000여명, 영양사 240여명 등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급식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단축수업·도시락 지급이나 빵·우유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교사 실무사 220여명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수학교 아동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광주지부도 오는 23일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317개 초·중·고교와 단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급식조리원(961명), 조리사(203명), 영양사(114명) 등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고려해 빵·우유 급식, 도시락 지급, 단축 수업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남은 5명 찾는다... 세월호 객실 2차 수색

세월호 객실에서 미수습자 흔적을 찾는 2차 수색이 21일 시작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3~5층 객실에서 1차 수색 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재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철관 접합부위 모서리나 틈새, 접근이 어려웠던 구역 등 작업자 손길이 세심하게 닿지 않았던 공간을 정밀 수색한다.

수습본부 관계자는 "2차 수색은 '점검 수색'이며, 미진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선미 추가 절단이 세월호 선체 안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습본부와 선체조사위원회는 1~2층 화물칸 수색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김현영기자 young@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상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점입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천시장

2~5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영

6 743㎡ | 전문병의원 및 푸에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절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Hanwha Q CELLS 한화큐셀

시중가 600~650만원 월 4만 7천원부터

농업 업무제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동로 106(해가온빌딩 1층)